



현실과 환상사이 동화 세상

동화 세계를 소재로 한 특이한 미술작품전이 내달 주미대사관 산하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린다. ‘바람직한 동화: 환상과 실재 사이(Desirable Fairy Tales: Between Fantasy and Reality)’를 주제로 내달 10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될 전시회는 뉴 미디어 작가인 천민정(MICA 교수)씨와 인터미디어 작가인 이해림씨, 길버트 트렌트, 사토미 시라이씨 등 4인의 근작 20여점으로 꾸며진다. 전시작들은 회화, 설치, 디지털 인화, 사진, 3D-애니메이션 등 여러 미술 언어가 만나 다이내믹함을 더한다. 천민정씨는 70년대 어린 소녀들이 갖고 놀던 종이인형을 원본 그대로 확대 출력한 디지털 인화 작업을 선보인다.

멀티미디어 작가 이해림은 사이버 문화와 비디오 게임 등 대중문화속 여성의 이미지에 주목한 작품을 소개하며 사회 집단이 이상화시켜온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시회 큐레이터인 전정옥씨(프로젝트 안디니 대표)는 “다양한 문화적 미학적 배경을 지닌 4인의 작가가 이상(Idol)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들의 놀이 곳곳에 팽배해 있는 삶에 대한 획일적 태도와 의도된 보편의 부조리를 미술로 담아냈다”고 말했다.

작품전 개막식은 10일(수) 오후 6시 열리며 ‘작가와 함께 하는 갤러리 투어’ ‘오프닝 퍼포먼스’ ‘야외 비디오 프로젝션:이해림 작가의 ‘래쉬(Lash.사진)’ ‘신간 전시:천민정 작가의 샤머니즘+사이버스페이스’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703)507-0864

<정영희 기자>